

## 북한, 양로원에 철조망 설치

- 북한 양로원은 현대판 고려장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12월부터 북한 전역의 양로원에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양로원들에 높이 2m 가량(양로원마다 철조망 높이는 조금씩 다르다고 함)의 철조망이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북한의 내부 소식통이 알려 왔다. 그는 최근 양로원의 노인들이 열악한 양로원을 빠져 나와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면서 방황, 결식, 구걸, 절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빈도가 잦아지자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현재 양로원들에서는 식량 사정으로 노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겨울에 난방도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되니 노인들이 양로원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가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양로원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김일성이 무의무탁상태인 노인들에 한해 그들의 생존과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도록 각 시, 군들에 하나씩 건설하게 했다. 그 후 북한에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나는 양로원 간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었다. 그러나 동구권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양로원의 질적 저하가 발생했다. 나아가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집권, “고난의 행군”등을 겪으면서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노인들이 별 수 없이 가는 곳으로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그들의 생존권 보장보다는 손발을 묶는데 열중하여 양로원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북한의 양로원은 현대판 고려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